



# “아시아 인쇄인문

## 화합 · 공동발전 방안 모색

### 2002 FAGAT 페막

아시아 인쇄인들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태동한 아시아인쇄기술 포럼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올해가 6회째인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19일에 총회와 환영연이 베풀어졌고 20일에는 개회식과 정보교환회의, 21일에는 정보교환회의와 환송연 순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정보교환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광득룡 인쇄연합회회장을 비롯,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차기 포럼 개최국을 말레이시아로 결정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가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북한의 가입은 보류키로 했다. 또 포럼을 현행대로 매년 개최키로 했으며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팩과 북경인쇄기자재전시회에 회원국들이 최대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21세기 인쇄와 그래픽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인쇄물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광득룡회장을 단장으로 소병식전무이사, 고수곤 김직승 박충일 구자만 안봉식 이충원 유상태 하계민 배상환 최창근 한해룡 김봉선 이원근 이명원 서동욱 유해건 오태환 이수만 추한창 이철안 김상실이사, 방대석 이연환감사, 이국홍 인쇄물수출진흥협의회회장, 연합회 이창호 안기용부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 하나”

